



최연의 산 이야기 <16> 두륜산 2

만세불파(萬歲不破)의 길지(吉地)인 대둔사를 품고 있는 두륜산.

서산대사의 출사로 조선불교가 되살아나다

<出師>

두륜산이 부러놓은 대둔사는 골짜기가 깊고 그윽해서 전란(戰亂)과 흉년과 전염병의 삼재(三災)가 침입하지 못하고 천추에 길이 보존될 수 있는 만세불파(萬歲不破)의 땅인데, 이러한 풍수지리적인 길지(吉地)를 서산대사께서 혜안(慧眼)으로 내다보고 '의발(衣鉢)'과 '대선사 교지'를 이곳으로 내려 보내 임진왜란 이후 혹독한 불교탄압에도 13종사(宗師)와 13강사(講師)를 배출하며 조선불교의 법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서산대사가 출사입신(出師立身)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조선시대는 고려의 과거제도를 이어받아 세종 때부터 승과(僧科)를 두었으나 연산군 10년에 억불정책이 강화되면서 폐지되었다가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할 때 보우대사(普雨大師)의 건의에 따라 승과가 부활되는데 명종 7년부터 21년까지 15년간 실시되었다.

이 때 승려들의 과거시험을 치르던 곳이 폭설 봉은사 앞 너른 들판인데 이곳을 승과평(僧科坪)이라고 한다. 수백만 평이나 되는 승과평은 봉은사 땅이었는데, 박정희 정권 하에서 권력의 실세였던 이후락이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을 하면서 강남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장흥동에 있는 재향군인회 건물과 맞바꾸어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교사로 사용하고 있다.

승과(僧科)와 잡과(雜科)는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니까 4

번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첫 번째 선과(禪科)에 서산대사가 장원으로 급제하게 된다.

그 후 서산대사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양종판사(兩宗判事)를 6,7년 맡았다가 직책을 버리고 운수행각을 일삼으며 금강산, 태백산, 오대산 등지에서 수행을 하다가 만년에는 묘향산에 주석하였다. 서산(西山)이라는 호도 서쪽에 있는 산인 묘향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서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서산대사가 일흔 살 때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전주 사람 정여립(鄭汝立)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는데 당파싸움에 밀려 진안으로 내려와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왜구의 침략도 자율적으로 막고 앞으로 왜 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군사조직을 만들어 닦쳐올 미래를 대비하였다.

그 세력이 차츰 커져서 호남을 비롯하여 평안도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반대파인 서인들의 무고로 당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역모를 꾀하였다는 이유로 대동계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잡혀서 참형을 당하고 정여립은 자살을 한다. 이를 기혹옥사라고 하는데 호남의 동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 때 무업(無業)이라는 승려가 서산대사가 정여립의 일당이라고 무고(誣告)해서 서산대사가 역천모의(逆天謀議)에 가담했다고 잡혀왔는데 그것의 증거가 다음과 같은 시 한수였다.

만국(萬國)의 왕성(王城)도 개미집 같고
영웅호걸(英雄豪傑)도 하루살이 같네
창가에 명월(明月)이라 팔을 베고 누웠으니
술일을 스쳐가는 바람소리만 영원하리라.

선조는 이 시를 보고는 무고였음을 알아차리고 서산대사를 곧 석방하고 그 시를 칭찬하고 상까지 내렸다.

그로부터 3년 뒤 임진왜란이 터졌고 서산대사는 의주로 선조를 찾아가 승병을 일으킬 것을 자청하니 그를 승병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곧 이어 전국의 승려들에게 "늙은 중은 기도를 올리고 젊은 중은 승병이 되라"고 영을 내리니 사명(四溟)과 처영(處英) 등 제자들이 제일 먼저 승병을 일으켜 달려왔다. 곧 이어 사명과 처영에게 승병의 지휘권을 넘기고 묘향산(妙香山)에 들어가 세수 85세로 열반에 든다.

그리고 서산대사와 같은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승과고시를 부활하게 한 보우대사는 문정왕후가 즉자 제주도에 유배되고 마침내는 제주 조천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보우대사의 승과고시 부활의 건의가 없었다면 억압받는 조선에서의 불교의 중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서산대사의 출현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모든 세상의 일이 그러하듯이 시절인연이 제대로 들어맞아야만 새로운 역사의 장도 열리나 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고름 태양

제주도 어디쯤에 장마전선이 상륙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침부터 희뿌연 안개가 산과 산 사이를 잔뜩 메웠다. 앞산이 흐릿하니 무슨 신비한 세계가 펼쳐진 듯도 하다. 이 세상 너머 저 세상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려니 생각한다.

오후에 접어들면 걷히겠거니 했지만 안개는 걷힐 기세가 아니었다. 저녁이 가까워와도 걷히질 않았다. 곧 장마가 들이닥칠 것만 같으니 할 일이 하나 생각났다. 고추밭에 줄치기였다. 요새 고추는 조금만 커도 웬만한 바람 하나 감당하지 못한다. 다수확 품종으로 개량을 하고 또 한 탓이다. 고추가 제 몸을 감당하건 말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어찌 되든 열매가 크고 많이 열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고추는 스스로 제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 막 커가는, 기세가 등등한 고추의 모습이 어찌 박아놓은 지시대 사이에서 하늘 향해 온 몸을 뻗고 있는 것을 보니 줄을 칠 힘이 은근히 솟았다. 등에 맨 작은 배낭에 넣은 줄머더기의 안쪽 끝을 잡아당기며 대어섯 포기에 하나씩 박힌 지시대에 줄을 감아나기 시작했다. 지시대마다 선을 감으며 반대편까지 가서는, 다음 고랑에 들어서서 맞은 편으로 돌아오며 반대편 줄을 치는 방식으로 서너 줄을 치고 나니, 땀이 솟아 작업복 윗 옷이 흠뻑 젖었다. 위잉위잉 쇠파리가 내 피를 빨으려 달려든다. 손으로 쳐서 쫓고는 다시 줄을 매기 시작했다. 또 한 줄을 매고 나니 허리가 아프다. 몸을 일으켜 하늘을 보았다.

햇살도 어찌하지 못하는

안개의 세상에선

누런 고름 덩어리인

태양을 보며 안개가 아닌

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잊어야 한다

태양 아래 푸르른 세상을

그리며 묵묵히 살아야 한다

다시 허리를 굽히고 몸을 낮춰 줄을 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아픈 허리도 그 사이 치료가 되었는지 줄을 칠만 했다. 땀은 줄줄 흘러 바지까지 적었다. 바지와 다리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끈적끈적하게 다가왔다. 상의는 흥건하게 젖어 배에 가슴에 등에 척 달라붙었다. 한 줄을 치고 다시 몸을 일으켜 쉬면서 태양을 보았다. 여전히 해는 노란 상처다. 안개의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이 앞산 옆산 뒷산을 가리고 해를 가리고 기어오 내 몸과 마음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남은 두 줄을 부리나케 치고 서둘러 집을 향해 걸었다. 안개 속에서 보이는 길은 하나다. 안개의 길. 스스로 안개가 되는 일. 햇살도 어찌하지 못하는 안개의 세상에선 누런 고름 덩어리인 태양을 보며 안개가 아닌 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잊어야 한다. 태양 아래 푸르른 세상을 그리며 묵묵히 살아야 한다.

■유승도 (시인)

www.buddhashopping.com
NAVER **북다쇼핑** 응처보내

백중 영가옷

B형-남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치마), 버선, 봉투

종이영가옷A형-남/여	할인가 각 1,200원	정가 1,500원
종이영가옷B형-남/여	할인가 각 1,000원	정가 1,300원
종이영가옷C형-남/여	할인가 각 950원	정가 1,200원
종이영가옷-동남/동녀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종이영가옷-수자	할인가 각 600원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 종이영가옷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더하여 신묘장구범어,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법화경 사경책 시리즈

※ 우리말로 해석된 경전사경책은 금강경 1권, 지장경 2권, 법화경 7권(한문/한글/우리말)이 있습니다. 연하게 인쇄된 밑글씨를 따라 사경할 수 있는 우리말 풀이 사경책 시리즈입니다.

한문	한글	우리말
11~17호	19~25호	34~40호
할인가 4,200원(1권) 정가 6,000원	할인가 3,500원(1권) 정가 5,000원	할인가 2,100원(1권) 정가 3,500원

파라판(12벌)
50,000원

돈타레(40개)
83,000원

영원당(단)
10,000원(10개이상)

와카바향(단)
11,000원(10개이상)

행복으로 가는길
3,000원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편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불삼 / 02)2004-8216**
 ☎ 083-01-286062 (주)한대불교신문사